

전남도 으뜸한우 경진서 보성 조정화 농가 ‘종합챔피언’

고급육 부문 대상 광양 서병근 등 23농가 입상
최우수 시·군 영암군···축산업 유통 인프라 강화

전남산 우량한우 선발을 위해 6일 순천 광양축협 가축시장에서 열린 제41회 전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에서 종합챔피언상에 보성 조정화 농가, 고급육 부문 대상 수상에 광양 서병근 농가가 선정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한국축육개량협회 전남광주지역본부(우량한우)와 축산물품질평가원 광주전남지원(고급육)의 전문 심사위원이 출품작 113마리(우량한우 85·고급육 28)를 종합 심사해 우량한우 20마리, 고급육 3마리, 우수 시군 및 축협을 각각 3개소 선정했다.

이번 대회 최고의 상인 우량한우 종합챔피언상을 받은 보성 조정화 농가의 한우는 발육과 골격이 우수하고, 성장 발달을 가늠할 수 있는 십자부고, 몸과 다리의 균형이 우수했다. 이는 밀식사육을 하지 않고,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한편 전남도 송이지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등 체계적 계량을 통해

이론 성과라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으뜸한우 경진대회 고급육 품평회 수상자들도 이날 표창을 받았다.

17개 시·군에서 32개월령 이하 혈통·고등 등록우 중 자질이 우수한 최고급 한우(거세우) 28마리가 출품돼 경쟁을 펼친 으뜸한우 경진대회 고급육 품평회에서 ‘지리산순한한우’ 회원 농가인 광양 서병근 농가가 대상을 차지했다.

서병근 농가는 육성비육부터 발육사료를 직접 제조해 자주 채식하고 있다. 근내지방의 분포와 얇은 등지방, 넓은 단면적이 조화를 이뤄 육질과 육량 모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품평회 당시 전국 평균 경락가(1kg당 2만2000원)보다 2.4배 높은 1kg당 5만 1000원으로 총 2785만원의 경매가를 기록, 전남 최고 한우의 위상을 높였다. 최우수상은 곡성 최하나 농가, 우수상은 영암 이재성 농가가 각각 차지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6일 순천광양축협 가축시장에서 열린 '2025년 전라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 행사에서 종합챔피언 등 으뜸한우 수상자들을 축하해 주고 있다.

이외에도 부문별 1등인 최우수상에 암송이지 부문 고흥 김지훈, 미경산우(송이지)를 생산한 경험이 없는 암소) 부문 곡성 조신외, 번식암소 1부 부문 영암 문영식, 번식암소 3부 부문 장성 장행순, 최우수 시·군에 영암군, 최우수 축협에 영암축협이 각각 선정됐다.

김영록 도지사는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체계적인 개량을 통해 품질 좋은 한우를 생산하는 대한민국 한우산업 일번지다”며 “축산농가와 적극 소통하면

서 AI 첨단 축산업을 집중 육성해 미래 축산업 경쟁력 확보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돈 버는 축산,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

광주여대, 광주김치축제서 ‘우수농식품관’ 운영

RISE사업단 “김치·지역식품 어우러진 체험전시관 호응”

‘맛어울관’ 지역 공동체 동참
젊은층·가족 방문객에 ‘인기’

광주여자대학교 RISE사업단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32회 광주김치축제에서 ‘2025 우수농식품 맛어울관’을 운영하며 광주김치와 지역 농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이번 전시관은 ‘맛으로 즐기고, 체험으로 느끼는 광주김치와 지역농식품의 조화’를 주제로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김치와 지역 농식품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광주김치를 중심으로 지역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며 지역민과 관광객의 호응을 얻었다.

관람객들은 광주김치, 중국산김치, 비건김치, 경상도김치, 충청도김치 등 다섯 가지 김치를 비교하며 ‘김치 소믈리에’ 미각퀴즈에 참여할 수 있었고, 정답을 맞힌 이들에게는 김치 바구니가 체험권과 김치유산균 빵, 배추수세미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됐다. 또 김치찜, 김치오란, 김치토끼, 호두정과, 식혜 등 전통의 맛을 현대



광주여자대학교 RISE사업단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32회 광주김치축제에서 ‘2025 우수농식품 맛어울관’을 운영하며 광주김치와 지역 농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적으로 재해석한 제품들이 전시돼 젊은층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 맛어울관은 단순한 전시를 넘어 지역 식품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이 함께 한 상생의 장으로 운영됐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형 베이커리 ‘떡볶이 프래첼’은 두부과자와 견과바 등 건강 간

식을 선보였으며, 영유아용 안전 먹거리 전시한 ‘지니온’과 광주산 막걸리·소주를 선보인 ‘월광주조’ 등도 참여해 지역 식품기업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보여줬다.

임귀자 RISE사업단장은 “광주김치축제의 맛어울관은 김치와 지역농식품을 중

심으로 지역 기업, 사회적경제 조직, 그리고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전통식품과 문화콘텐츠를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지역산업 발전과 상생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HD현대1%나눔재단은 최근 영암군청과 목포시청을 차례로 방문해 우송회 군수와 조석훈 시장 대행에게 2200만원 상당의 카본매트 100개를 전달했다.

HD현대1%나눔재단, 저소득층 겨울물품 후원
영암·목포 100세대에 카본매트 전달

HD현대1%나눔재단과 HD현대삼호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겨울나기 물품을 후원하며 온정을 나눴다.

HD현대삼호는 최근 영암군청과 목포시청을 차례로 방문해 우송회 군수와 조석훈 시장 대행에게 2200만원 상당의 카본매트 100개를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 가구는 지역별 50세대씩 총 100세대로 목포시와 영암군이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중위소득 80% 이내 가구 중에서 선정했다.

이번 후원물품 전달은 HD현대1%나눔재단의 ‘해피서포터즈’ 사업을 통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현물 지정기탁 방식으로 이뤄졌다.

HD현대1%나눔재단은 그로서 임직원 급여의 1%를 모아 기금을 마련해 각종 사회공헌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HD현대삼호 관계자는 “이번 카본매트 지원을 통해 지역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HD현대1%나눔재단과 HD현대삼호는 목포시, 영암군 지역에서 여름나기와 겨울나기 물품 전달 사업,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 복지시설 후원사업, 사랑의 김장 나눔 사업, 지역 어르신들의 밑반찬을 챙겨드리는 ‘행복한끼’ 사업, 풍수에 복구 지원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90행복봉사단’과 함께 6일 장성군노인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급식봉사 및 공직선거법 안내 활동을 실시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 ‘1390행복봉사단’

장성서 배식 봉사·공직선거법 안내 활동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90행복봉사단’과 함께 6일 장성군노인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급식봉사 및 공직선거법 안내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장성지역 어르신 250여명을 대상으로 급식봉사와 기부행위 상시제한 등 공직선거법 안내, 네일아트 및 음악공연 재능기부, 후원물품 기부 등으로 진행했다.

‘1390행복봉사단’은 전남도선거관리위

원회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조직으로, 공명선거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이날 봉사를 포함해 전남 4개 시·군에서 어르신 1000여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총 350여만원 상당의 후원품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선관위의 이미지를 확산시켰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 북부소방 이경순 소방장 ‘우수 구조대원’ 선정

소방청장 표창·특별 승진 영예

광주 북부소방은 119구조대 소속 이경순 소방장(사진)이 ‘2025년 제6회 우수구조대원’으로 선정, 소방청장 표창과 함께 특별승진의 영예를 얻었다고 6일 밝혔다.

우수 구조대원은 전국 18개 시·도 소방공무원 중 구조현장에서 인명구조와 재산피해 방지 등 구조와 관련된 활동공적, 경력,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구조활동에 이바지한 대원에게 주어지는 제도다.

이경순 소방장은 지난 2010년 소방에 입사해 15년 동안 각종 화재, 구조 등 재난 상황에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광주 신축아파트 공사장 붕괴사고 현장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소방청장상을 수여받은 바 있다.

더불어, 인명구조사 1급, 화재대응능력



1급,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등 다양한 관련 전문자격을 취득해 스스로 역량을 꾸준히 향상시켜 현장에서의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했다. 또 그는 ‘홀로 거주하는 91세 할머니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 신변확보 후 특이사항 없음을 확인하고 보호자인 손녀에게 인계했다.

이후 손녀로부터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걱정에 부득이하게 요청했는데 신속히 출동하고 도와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훈훈한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이경순 구조대원은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영광스럽다”며 “이번 특별승진은 개인이 아니라 함께 땀 흘린 동료 모두의 성과로 앞으로도 일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3대 사망사고 ZERO화 만들기 안전문화 캠페인’ 광주시동구세마의회(회장 김대영)는 최근 안전점검의날을 맞아 새마을지도자 30여명과 함께 3대사망사고(자살, 산업재해, 교통사고) ZERO화 만들기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했다. 사진제공=광주시동구세마의회